

초등국어 교사교육을 위한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개선

천경록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이 논문은 제75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1.12.11.)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 한 것임.

- I. 서론
- II. 목적과 편성의 문제
- III. 운영과 평가의 문제
- IV. 결론

I. 서론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사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한다면, 초등국어 교사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초등국어 교사교육은 크게 교육대학의 양성교육과 시도교육청의 연수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의 교육 대학(이하 교대) 교육과정은 대부분 코로나19 이전에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과정이 뉴노멀 시대 초등국어 교사 양성에도 타당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뉴노멀 시대가 전개되더라도 현재의 양성교육과 전혀 다른 모습의 교사 교육이 갑자기 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여 이 글에서는 초등국어 교사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교대(教大) 교육과정을 목적, 편성, 운영, 평가 측면에서 점검해 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전국에는 10개의 교대가 있고, 설립 주체, 목적, 규모, 지역 기반, 교육과정 면에서 비슷하다. 따라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쉽게 개선될 수도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대 교육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도입되었다. 대면 수업을 대체하기 위해 부득이 수용되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일정 부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초등국어 교사교육 관련 과목들의 운영 실태와 개선의 요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교대 교육과정 영역은 크게 보아 교양, 교직, 교과교육, 심화, 실습, 논문 등으로 구성된다. 실습과목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심화과목은 국어과를 심화 전공으로 선택한 소수 학생들만 이수하며, 교직과목은 교육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대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국어 교사교육과 직접 관련되면서 모든 예비교사들이 반드시 이수하는 것은 교양필수 과목 일부와 교과교육론 과목 중에서 ‘국어과교육’ 과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II. 목적과 편성의 문제

1. 교육 목적과 교사상 : 실제적 지혜

각 교대의 교육과정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교육과정을 변경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교육부의 요구로 AI 과목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적 개정과는 별도로 교대 교육과정의 목적에 해당하는 교사상(教師像)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교사상을 그리면서 초등국어 교사교육을 해 왔는가? 지금까지는 예비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국어과와 관련된 지식이나 수업

기술(기능)을 더 잘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주력해 왔다. 이는 역량 중심의 접근에 해당하며, 기대하는 교사상은 지식인, 기술인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 결과, 초등국어 교육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역량 중심의 교사교육은 끝이 없는 일이며, 이런 접근만으로 충분치 못한 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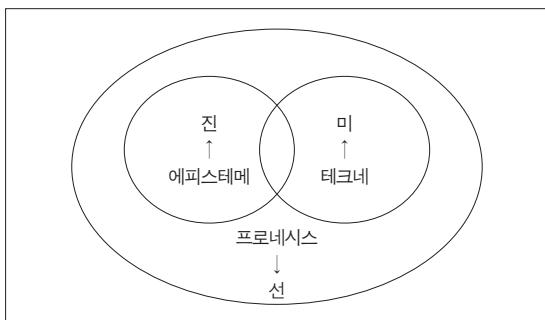
관련하여 유영만(2015: 211)은 교사교육에서 수업설계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본질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phronesis) 개념에서 유래한 실천적 지혜¹⁾라고 보고,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능숙한 수업 설계자’ 개념에서 ‘올바른 수업 설계자’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올바른 수업 설계자란 이론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은 물론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유영만(2015: 195-199)은 실천적 지혜의 특성에 대해 원칙과 도덕적 판단,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간주관적 실천, 보편성과 구체성이 통합된 종합적 지혜 셋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도덕적 판단은 일의 참 목적이 비추어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으로, 원칙을 존중하되 고지식하지 않게 상황에 대처 한다는 뜻이다. 둘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실천적 지혜가 개인 차원의 숙고로 시작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협동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종합적 지혜는 언제 어디서든 통하는 보편적 지식은 아니라 구체적 상황, 사례에 대해 당장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할 줄 아는 지혜로, 맥락 구속적 지혜라는 뜻이다. 실천적 지혜의 이 세 가지 특성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자신과 공동체의 선(善)에 대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관련하여 천경록(2021 ㄱ: 16)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론에 근거

1)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프로네시스(phronesis)는 연구자에 따라 실천적 지혜, 혹은 실제적 지혜로 사용된다. 이 글에서 다른 연구자가 실천적 지혜를 사용한 것은 그대로 인용하고, 발표자는 ‘실제적 지혜’를 사용하도록 한다.

하여²⁾ 국어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이론적 지식, 기술적 지식, 실제적 지혜로 구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그림 1> 초등국어 교사상을 위한 지식의 유형 개념도

<그림 1>에 나타난 프로네시스(실제적 지혜)를 초등국어 교사교육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론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함양에 주력하였지만, 도덕적 판단 능력, 곧 선 의지를 갖추도록 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상은 교사, 초등, 국어과라는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는 감염력이 높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야 하고, 국어는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치관이 전수 된다. 초등국어과에서 교사는 비판적 사고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초등국어 교사상에는 교과에 대한 지식과 기

-
- 2)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에피스테메: 이론적 지식 (이론지)	프로네시스: 실제적 지혜 (실제지)	테크네: 기술적 지식 (기술지)
그 원리가 다르게 있을 수 없는 존재자들	그 원리가 다르게도 있을 수 있는 존재자들	

술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선 의지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프로네시스(실제적 지혜)는 에피스테메(이론적 지식)와 테크네(기술적 지식)를 포함하고 있다. 선 의지에 기반하지 않은 교사의 지식과 기술은 잘못 적용되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뉴노멀 시대의 교대 교육과정은 목적의 측면에서 실제적 지혜를 갖춘 교사상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적 면에서 도덕적 선 의지를 갖춘 교사상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지식인’, ‘기술인’ 상으로 그려지는 역량 중심의 접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며, 여기에 부가하여 실제적 지혜, 곧 ‘도덕인’ 상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지식도 교사교육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수된다기보다는 교사 자신이 교육 현장에서 실천(action)과 성찰(reflection)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체득되는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 편성 실태와 개선 방안

1) 편성 실태

교대 교육과정 편성 개요는 <표 1>과 같다. 10개 교대는 학점 수, 비중, 과목 명칭 등에서 유사하다. 조사 시점(21.10.15.)에서 네 개 대학을 표집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교대 교육과정 편성의 개요

교대	시수*	학점	교양	교직	교과교육	심화	실습
서울	140	140	34	18	64	20	4
공주	153-158	143	39	18	61	21	4
부산	147	131	31	20	58	18	4

광주	149-153	137	35	20	58	20	4
범위/평균	140-158	137.75	34.75	19.00	60.25	19.75	4.00

* 실기, 실험 과목 중에 학점과 시수가 다른 경우가 있음.

교대 교육과정 중에 국어교육과 관련되는 주요 과목은 교양필수와 교과 교육 과목이다. 이 중에 국어교육 관련 과목은 다음 <표 2>와 같다. 각 교대는 9학점에서 10학점 내외의 국어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 국어 관련 교양필수 과목과 교과교육 과목 편성 사례

교대	교양과목(학점)	교과교육(학점)	합계
서울	언어생활의…/문학과 독서…(2) 글쓰기와 …/체험과 작문(2)	…국어교육의 이해(2) …국어교육의 실제(3)	9
공주	국어 이해(2) 국어 표현(2)	…국어과 교육론(3) …국어과 교재연구 …(3)	10
부산	의사소통역량(3) 중 택1 창의융합역량(2) 중 택1	초등국어과교육론(2) 초등국어교재연구(2)	9
광주	대학작문(2) 교사화법(2)	국어과교육1(3) 국어과교육2(3)	10
범위	4~5	5~6	9~10

전체 이수 학점 중에서 국어교육 관련 과목의 편성 비중과 과목 명칭은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변화 내용은 각 교대마다 역사적 맥락이 다소 다르다. 비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학교도 있고, 반대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학교도 있다. 광주교대 사례를 보면, 전체 이수 학점 수는 축소되는 데 비해 국어교육 관련 과목의 비중은 확대되었다(<표 3> 참조).

〈표 3〉 필수과목의 명칭과 비중의 변화: 광주교대 사례

개정 연도	학점	교양필수(학점)	교과교육론(학점)	비중
1997	145	국어와 독서(2) 대학 작문(2)	국어과교육1(2) 국어과교육2(2)	5.51%
2002	144	독서와 작문(2)	국어과교육1(3) 국어과교육2(3)	5.55%
2013	145	화법과 작문(3)	국어과교육1(3) 국어과교육2(3)	6.20%
2017	137	대학 작문(2) 교사 화법(2)	국어과교육1(3) 국어과교육2(3)	7.29%

대학의 학점 비중은 교수 채용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 학과는 더 많은 학점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광주교대의 경우, 교사교육의 목적이나 본질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에게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점진적으로 국어 교사교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하고, 정교화 해 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화과목은 20학점 내외를 이수하는데 주로 3학년부터 운영한다. 학교마다 과목 명칭은 약간씩 다르다. 교대의 심화 전공은 ○○과와 같은 교과를 배경으로 하는 전공과 교육학과, 컴퓨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과목은 모든 교대 학생들이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만 이수한다. 광주교대에서 국어과를 심화 전공하는 학생들의 편성 과목 사례는 다음 〈표 4〉와 같다. 교과내용학 과목과 교과교육학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4〉 국어과 심화과목: 광주교대 사례

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과목	현대문학강독	국문학개론 국어학개론	고전문학강독 작문교육론 문법교육론 아동문학교육론	화법교육론 독서교육론 국어 수업 연구
학점: 20	2	4	8	6

교사교육에서 교육실습은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는 주요 과정이다. 이를 위해 10개 교대는 4학점 내외의 실습과목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3~5 과목 편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교대는 논문,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 봉사 활동,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extra curriculum)을 운영하고 있다.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초등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교대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편성의 문제점을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교대 국어과 교육과정으로는 초등국어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심도 있게 가르칠 수 없다. 교대 교육과정은 여러 교과를 동시에 가르치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사범대학에 비해 어느 하나의 교과, 예를 들어 국어과 전문성을 갖추어 주기가 쉽지 않다. 이를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교대 교육과정은 10종 경기 선수를 길러내고, 사대(師大) 교육과정은 수영과 같은 한 종목 선수를 길러내는 것과 같다.

국어과를 심화 전공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대 학생은 교양필수와 국어과 교육을 합친 9학점 내외의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앞의 <표 2>와 <표 3> 참조) 초등국어 수업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에 국어과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교과교육 과목은 5~6학점 정도인데, 이를 통해 초등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수업 기술을 익혀야 한다. 따라서 국어교육에 대해 꾀상적 이해에 머무를 수 있다.

둘째, 현재의 교대 교육과정은 예비교사들에게 국어교육에 관련된 실천적 지식의 체득 과정에 대해 체계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은 교대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과교육 과목에서 국어교육에 관한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교육실습을 통해서 적용하고, 이 과정을 성찰하면서 수업의 전문

성을 향상해 나가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대학에서 교수로부터 국어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 후에 실습 학교에서 실습지도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이 긴밀히 상호협력 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교대(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 실습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지도 간의 연계성이나 활동의 교류는 체계적으로 강화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교대 교육과정 영역 사이에 중복과 결손이 존재하고 있다. 교대 교육과정의 교양, 교직, 교과교육 등의 교과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고, 역할 분담이 잘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주로 교대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국어과교육1’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토대를 둔 비계(scaffolding) 개념은 현대의 교수학습 이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채택되어 있고, 국어과 교수학습을 설명할 때도 필요하다. 하여 국어과 수업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비계 개념을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면, 학생과 학과에 따라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처음 들어본다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의 경우, 교직 과목이나 여러 교과교육 과목마다 비계 개념을 설명을 듣게 되어 중복이 심하다. 반대로 교대 3학년이 되도록 비계 개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학생도 있다. 이는 교대 교육과정 영역 사이에 결손이나 중복이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앞 절에서 국어교육의 교사상으로 주목한 도덕인의 면모를 길러줄 장치가 별로 없다. 전술하였듯이 국어과 교사교육 과목에서는 국어과와 관련된 최소 필수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폐상적 지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교육 목적 논의에서 강조한 실제적 지혜를 제대로 다룰 여유가 없다.

(2) 개선 방안

초등국어 교사교육을 위해 교과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이수 학점을 늘

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도 총 이수 학점 수가 여전히 많은 상태이고, 학점과 시수도 일치하지 않아서 더 줄여나가고 있다(앞의 <표 1> 참조). 국어과 외에 다른 교과에서도 학점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태에서 국어과만 학점을 늘리자고 하기도 어렵다. 이런 제한 점 속에서 편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한다.

첫째, 융합적 교과목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교직과목과 교과교육 과목 중에서 교육 ‘방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융합적 교과목을 개발하여 과목 간의 중복과 결손을 방지하고 학점을 줄일 수 있다. 국어교육도 크게 보면, ‘왜 가르칠 것인가(목적·목표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내용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방법론)?’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교직과목은 물론 다른 교과교육 등과 공동의 요소를 추출하여 융합적 교과목을 개발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나 개념이 과목마다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꼭 필요한 내용이나 개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이수 학점을 줄일 수 있고, 교과별로 꼭 필요한 과목이나 학점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

둘째, 교양과목이 교과내용학의 역할을 겸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교대의 경우, 제한된 학점으로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양 지식과 전문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므로 사대와 비교하면 교과내용학에 해당하는 과목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양과목이 순수하게 교양을 길러주는 역할 이외에도 교과내용학 역할을 일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개론을 교양과목으로 편성한다면, 그 내용은 과학과 교육의 내용학 역할도 일부 담당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작문과 교사화법과 같은 교양과목의 학습은 국어과교육에서 작문론, 화법론의 내용적 지식과 연계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실습과목과 비교과 교육 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별로 지역 설정에 맞는 교육실습과 교직 인성, 적성 활동, 봉사 활동 등과 같은 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교대의 경우, 전남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어촌 및 도서벽지 체험 실습을 2학년 대상으로 1주간 운영하고 있고, 느린 학습자 지도를 위해 3학년 대상으로 교육봉사실습을 40시간(5주, 1학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실제적 지혜(프로네시스)를 갖춘 도덕인으로서 교사를 양성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III. 운영과 평가의 문제

1.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1) 조사의 개요

앞 장에서는 교대 교육과정에서 초등국어 교사교육과 관련된 주요 과목은 9~10학점 내외로 편성되어 있는 교양영역의 교양필수 과목과 교과교육 영역의 국어과교육임을 밝혔다(앞의 <표 2> 및 <표 3>참조).

20년도와 21년도에 이들 과목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비대면 수업은 부득이 수용되었지만 교대 교사교육에서 행해진 중요한 실험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등국어 교사교육 관련 과목의 운영 실태와 개선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두 건의 조사를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 9. 15.~10. 15. 일 사이에 진행하였고, 광주교대 재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20학년도부터 시작되었고, 교양과목은 1학년에 개설되기 때문에 교양과목 조사에는 조사 시점에서 1학년과 2학년이 응답하였고, 국어과교육 과목은 3학년에 개설되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서 3학년과 4학년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20학년도와 21학년도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였다. 참여자 개요는 <표 5>와 같았다.

〈표 5〉 설문조사 참여자

목적	구분	남성	여성	전체
교양교육 실태조사 (대학작문, 교사화법 과목)	1학년	30	59	89
	2학년	17	26	43
	전체	47	85	132
교과교육 실태조사 (국어과교육 1, 2 과목)	3학년	21	66	87
	4학년	7	15	22
	전체	28	81	109

2) 조사 결과와 문제점

(1) 대학작문 과목

① 대학작문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요구

아래 〈표 6〉에서 보듯이 비대면 방식의 대학작문 강의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대면수업과 별 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³⁾

〈표 6〉 대학작문 강의에 대한 평가

문항	응답 빈도(%)			
1. 비대면 강의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대면보다 못해	별 차이 없어	대면보다 나아	잘 몰라
	14(10.6)	60(45.5)	21(15.9)	37(28.0)
2.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을 원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잘 모름	
	51(38.6)	31(23.5)	50(37.9)	
3. 비대면 수업을 계속한다면, 그 비중은?	≤25%	≤50%	≤75%	100%
	33(25.0)	63(47.7)	15(11.4)	21(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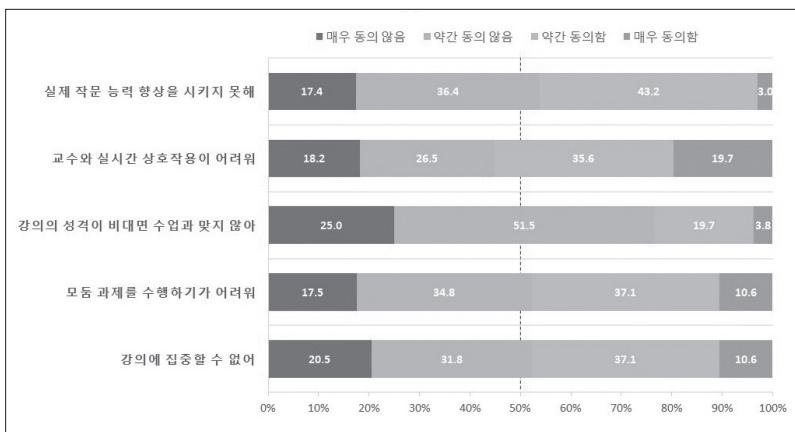
3) 지면 제약으로 조사 결과의 일부만 본고에서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경록(2021-)을 참조할 수 있다.

5. 비대면 실시간 오픈북 기말 시험에 대한 의견은?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3(2.3)	8(6.1)	16(12.1)	46(34.8)	59(44.7)

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기를 희망하였고, 그 비중은 50% 이하를 선호하였다.

② 대학작문 강의의 문제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대학작문 과목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결과는 <그림 2>와 같았다.



<그림 2> 비대면 대학작문 수업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실시간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이 55%로 나타나 과반을 넘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과반을 넘지는 않았다. ‘실제 작문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에 대해서는 46%는 동의하였고, 54%는 동의하지 않았다. 강의 성격이 비대면과 맞지 않

다는 점에 대해서도 24%는 동의했으나 76%는 부동의(不同意)하였다. 이로 보아 학생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작문 수업에 대한 거부감은 높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③ 대학작문 과목에서 더 강화할 내용

〈그림 3〉에서 보듯이 쓰기 윤리, 참고 문헌 작성, 논술문 쓰기, 보고서 쓰기 등에 대한 요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의견이 모두 과반을 넘었다. 작문에 대한 이론적 지식도 64%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내용에 비해서는 동의 정도가 낮았다.



〈그림 3〉 항후 대학작문 교육에서 강화할 내용 요구

(2) 교사화법 과목

① 교사화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요구

〈표 7〉에서 보듯이 코로나19로 진행된 비대면 중심의 교사화법 강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비대면 강의를 원하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원하지 않는 의견(32%)보다 높았다. 비대면 수업의 비중은 50% 이하 수준을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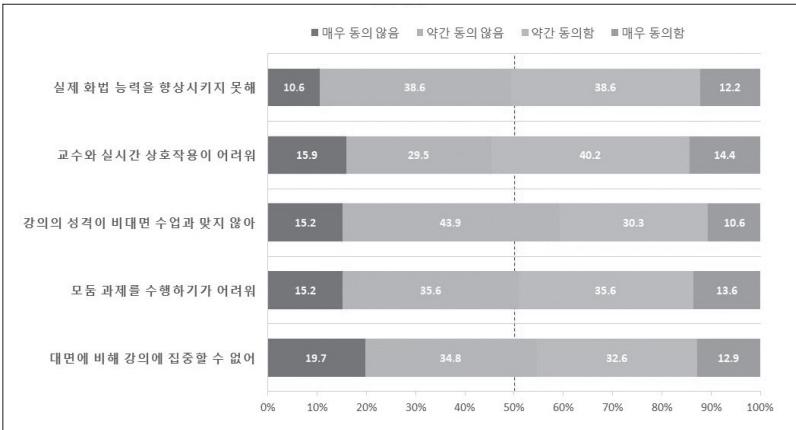
〈표 7〉 교사화법 과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요구

문항	응답 빈도(%)			
7. 비대면 강의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대면보다 못해	별 차이 없어	대면보다 나아	잘 몰라
	19(14.4)	60(45.5)	28(21.2)	25(18.9)
8.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잘 몰라	
	56(42.4)	43(32.6)	33(25.0)	
9. 비대면 수업을 계속한다면, 그 비중은?	≤25%	≤50%	≤75%	100%
	41(31.1)	51(38.6)	22(16.7)	18(13.6)
11. 비대면 실시간 오픈복 기말시험에 대한 의견은?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9(6.8)	7(5.3)	15(11.4)	54(40.9)
	매우찬성			
	47(35.6)			

② 교사화법 강의의 문제점

아래 〈그림 4〉에서 보듯이 ‘실시간 상호작용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약 54%). 그러나 ‘실제 화법 능력 향상과 연계되지 않는다’, ‘모둠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와 부동의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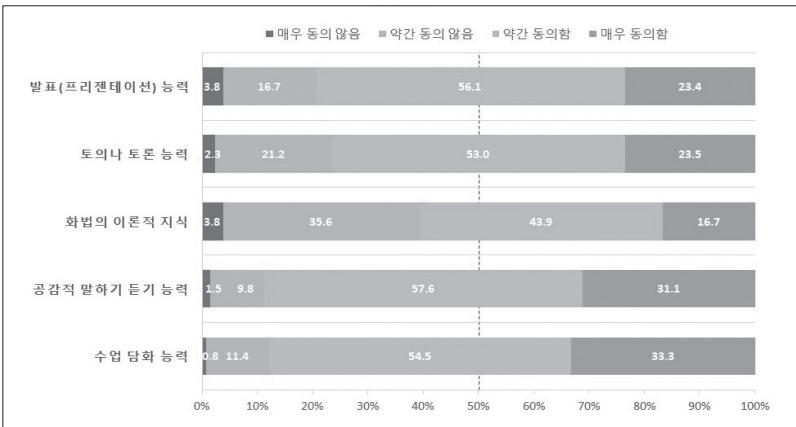
‘과목 성격이 비대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응답에 대한 동의정도는 41%로 나타나 동의 정도가 과반을 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학작문 과목 조사(23%)와 비교해 볼 때(앞의 〈그림 2〉 참조), 동의 비중이 41%로 올라갔는데, 이는 교사화법 과목이 대학작문 과목에 비해 맥락 의존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 교사화법 과목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③ 교사화법 과목에서 더 강화할 내용

향후 교사화법 과목에서 더 강화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으로는 수업 담화 능력, 공감적 화법, 듣기 능력, 발표 능력, 토의·토론 능력이 모두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교사화법 과목의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아래 〈그림 5〉 참조).



〈그림 5〉 교사화법 과목에서 향후 강화할 내용

수업 담화 능력은 초등 국어과 수업에서 화법 능력의 지도, 교직과목으로서 수업 실행 능력과 연계된다. 앞의 편성 부분의 개선 방안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교사화법이 교양영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교대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양과목이 순수 교양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공 기초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해서 해석해 볼 대목이다.

(3) 국어과교육1, 2 과목

① 국어과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개선 요구

아래 <표 8>에서 보듯이 비대면 방식의 국어과교육은 대면 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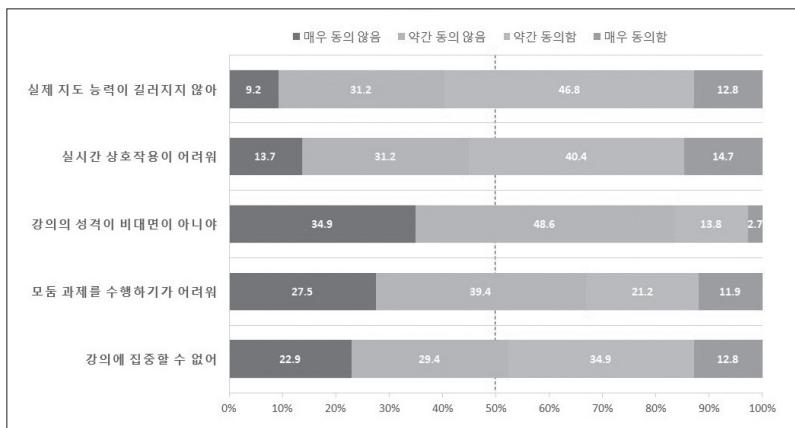
<표 8> 비대면 국어과교육 과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문항	응답 빈도(%)				
1. 비대면 강의에 대한 평가는?	대면보다 못해	별 차이가 없어	대면보다 나아	잘 몰라	
	14(12.8)	50(45.9)	21(19.3)	24(22.0)	
2. 비대면 수업을 계속 원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잘 몰라		
	47(43.2)	37(33.9)	25(22.9)		
3. 비대면을 원하는 이유는?	수업관리 효율적	반복시청기능	생활비 절약	등하교시간 절약	기타
	14(12.8)	55(50.5)	4(3.7)	30(27.5)	6(5.5)
4. 비대면 수업을 할 경우, 비중은?	≤25%	≤50%	≤75%	100%	
	26(23.9)	36(33.0)	21(19.3)	26(23.8)	
5. 선호하는 비대면 방식은?	실시간 수업	동영상 시청	실시간 수업 + 동영상	과제/ 프로젝	
	7(6.4)	63(57.8)	36(33.0)	3(2.8)	
8. 비대면 오픈북 시험에 대한 의견은?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4(3.7)	2(1.8)	23(21.1)	40(36.7)	40(36.7)

뉴노멀시대가 오더라도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 비중은 50% 이하를 선호하고 있었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반복시청 가능성 이 51%로 가장 높았다. 등하고 수업 시간 절약과 같은 이유도 3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업 방법은 일방향 소통에 가까운 동영상 시청을 가장 선호하였다. 창의적인 문제가 출제된다면, 비대면 오픈부 형태의 기말 시험에 대해서도 7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② 국어과교육 강의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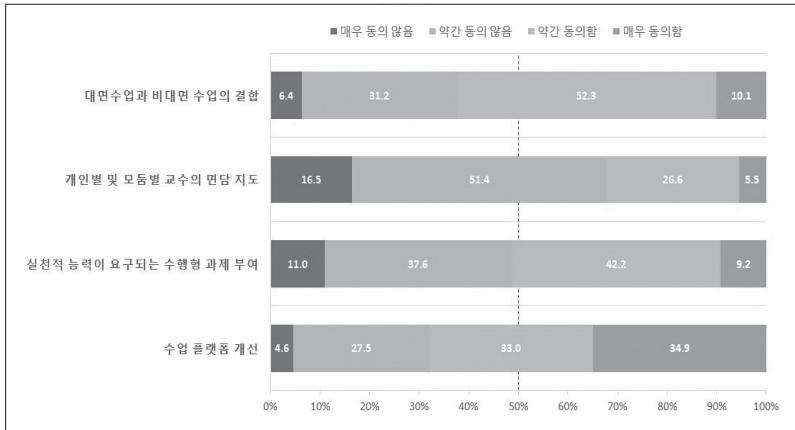
비대면 방식의 강의는 문제점도 많다. 아래 <그림 6>에서 보듯이 실제 지도 능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강의의 성격이 비대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한 동의는 17%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6> 국어과교육 강의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③ 국어과교육 비대면 수업 보완 방법

비대면 수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되는 것 몇 가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동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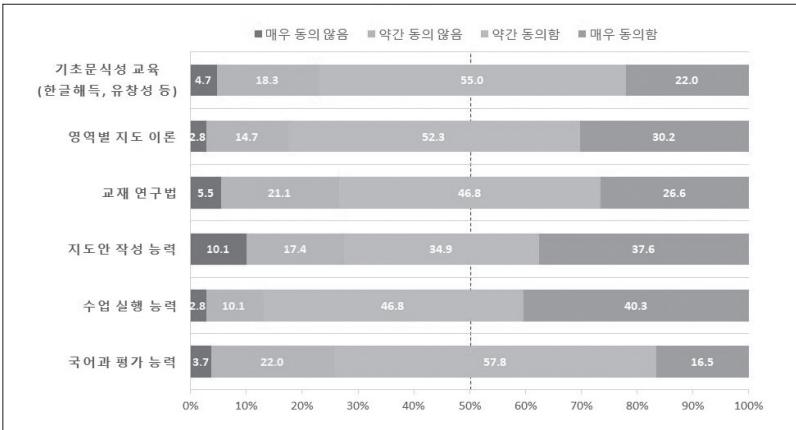
〈그림 7〉 비대면 국어과교육 과목의 보완 방법

학생들은 수업 플랫폼 개선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68%). 그밖에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결합 하는 방법도 62%로 높았고, 실천적 지식을 길러줄 수행형 과제의 개발에 대해서도 51%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교수와 개인 및 모둠의 개별 지도에 대한 선호는 32%로 나타나 동의보다는 부동의에 가까웠다.

④ 국어과교육 강화 내용

향후 국어과교육 과목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한 내용에 대해 모두 과반 이상이 강화해 주기를 원하였다(아래 〈그림 8〉 참조).

향후 위에 제시된 내용 중심으로 초등국어 교사교육의 내용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들이 지도안 작성 능력이나 수업 실행 능력을 길러주기를 원했고, 동시에 영역별 지도 이론도 강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실천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론적 지식도 동시에 강화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8〉 향후 국어과교육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할 내용

3) 운영의 개선 방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국어 교사교육을 위해 교대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교대 국어과 수업에서 25% 정도 비대면 수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수업은 이론적 지식 중심의 강의를 다루고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원하는 학생은 수차례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학점 한 학기 45시간으로 운영되는 과목에서 기말고사나 오리엔테이션 주간을 제외하면 13주 정도가 나온다. 12주 정도를 매주 한 시간 정도는 교수의 이론적 강의 중심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면 약 26%에 해당한다.

둘째, 블렌디드학습(Blended learning)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대 교육과정은 모두 137학점 정도를 요구한다(앞의 〈표 1〉 참조). 총 이수 학점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국어교육을 위해 학점을 더 늘릴 여유가 없고,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내기도 어렵다. 따라서 블렌디드학습과 플립러닝을 강화해서 수업의 효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블렌디드학습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것이다. 플립러

넣은 ‘강의는 집에서, 과제는 학교에서’에서 보듯이 전통적 수업 방법에 비해 역전된(혹은, 거꾸로) 학습 방법이다. 제한된 시간을 교수의 이론적 강의로만 채워서는 곤란하다. 교대의 교양필수 과목과 국어과교육 과목은 같은 내용을 여러 반으로 나누어 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적인 설명과 이론은 온라인 ‘강의(lecture)’로 제공하고, 반별로 학생에 따라 달라지는 과제 해결(예를 들어 질의응답, 토론, 심화, PBL 등)은 대면에서 ‘코칭(coaching)’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수업의 효율을 올려야 한다.

셋째, 교대 국어 교사교육에서 PBL 학습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천경록, 2018). PBL 학습에는 Problem Based Learning, Project Based Learning, Practice based learning, Place Based Learning 등과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임상훈·유영만·오현숙(2020)에서는 대학교육에서 PBL을 활성화 시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이 교육대학에서 응용될 필요가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수술을 할 수 없다면 의대 교육은 무용하다. 마찬가지로 교대를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칠 수 없다면 무용하다. 관련하여 국어과교육 과목에서도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국어과 수업을 담당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작문을 수강하고도 대학 생활에 요구되는 학문적 글쓰기를 할 수 없거나 교사화법을 수강하고도 예비교사에게 요구되는 화법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면 곤란하다.

국어과교육 과목 수업도 초등 국어교육의 실행과 연계해야 한다(앞의 <그림 1> 참조). 이를 위해서는 교대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PBL 학습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교대는 학문 분야로 보면 교육학에 속해서 교수법에 대한 이해도가 공대, 법대, 의대 등에 비해 높다. 이는 PBL 수업이 교대 수업에 적용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

끝으로, 교양필수와 국어과교육 과목에서 새롭게 중시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작문 과목의 내용에서 논술문 쓰기, 보고서 쓰

기, 작문의 이론적 지식, 쓰기 윤리, 참고문헌 작성 방법 등과 같은 내용은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앞의 <그림 3>). 교사화법 과목에서는 발표(프리젠테이션) 능력, 토의와 토론 능력, 화법의 이론적 지식, 공감적 화법 능력, 수업 담화 능력 등이 지도될 필요가 있다(앞의 <그림 5>). 국어과교육 과목에서는 기초문식성, 영역별 지도 이론, 교재 연구법, 지도안 작성 능력, 수업 실행 능력, 국어과 평가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내용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앞의 <그림 8>).

2. 교육과정 평가 체계의 구축

1) 평가의 실태

초등국어 교사교육과 관련된 교대 교육과정 평가는 크게 보면 대학 내부 평가와 대학 외부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학 자체에서 정한 평가 표에 따라 모든 교원들은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게 된다. 강의 평가는 교수나 강사들의 재임용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고, 교원의 경우 교연학비⁴⁾와 성과급적 연봉제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강의 평가는 과거에는 요식 행위로 받아들여졌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평가 결과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강의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무위원회, 양성위원회 등에서 교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 각 교대마다 교육과정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면 정책연구를 한 후에 교육 과정을 개정해 나간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에서 교대의 초등국어 교사교육 관련 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다. 보통은 학과인 국어교육과에서 개설한 강의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 교과목 개정안을 제출하

4) 국공립대학에서 교수 및 직원들에게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도하는 비용.

여 교육과정을 개정해 나가곤 한다.

대학 외부 평가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진단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⁵⁾에서 맡고 있다. 5주기 역량진단 대상 대학은 교대와 교원대, 사범대학, 사범대학 미설치 대학교, 전문대학과 그 밖에 실기교사 양성과정(일반대학 포함) 등이다. 21년에 이루어진 5주기 평가부터 평가 방향은 국가수준의 진단과 기관 자율 개선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의 명칭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역량진단’으로 개선되었다. 5주기 평가 대상 기간은 2018년, 2019년, 2020년이었다.

2021년에 발간한 교육대학교용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에는 교육여건 영역, 교육과정 영역, 성과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9〉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9)

항목	준거	지표	구분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편성운영	2.1.1.1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	정량
		2.1.1.2a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2.1.1.2b 교양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2.1.1.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정성
2.2 수업	2.2.1 수업의 충실행	2.2.1.1 수업 규모의 적절성	정량
		2.2.1.2 수업 운영의 현장성	정성
		2.2.1.3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력	정량/정성
		2.2.1.4 교수자 역량 개발의 충실행	정성
2.3 학생	2.3.1 학생 선발 및 지도	2.3.1.1 학생지도체제 구축 및 운영 실적	정성
		2.3.1.2 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	정성

5) ‘<https://necte.kedi.re.kr/home.do>’ 참고.

2.4 실습	2.4.1 교육실습운영	2.4.1.1 교육실습 체제 구축 및 운영 실적	정성
-----------	--------------	----------------------------	----

이중에 초등국어와 직접 관련되는 영역은 교육과정 영역이며, 관련 항목, 준거, 지표는 위의 <표 9>와 같다. 그러나 여러 교과가 동시에 관여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진단 결과가 초등국어 담당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되지는 않고 있다.

2) 교육과정 평가의 개선 방안

초등국어 교사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대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현재 활용되는 대학내부 평가나 대학외부 평가는 모두 초등국어 교사교육과 관련되는 교양과목이나 교과교육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피드백되고 있지는 않다.

교대 교육도 고등교육의 일환이고, 대학은 자율과 가치를 누리고 있다. 대학 외부에서 지나치게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성을 위축시킬 수는 있다. 그렇지만 교대 교육과정에서 국어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 학문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질적 측면에서 양호 정도를 평가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교육부나 교대총장협의회, 교육감협의회 등과 같은 곳에서 재원을 마련한 후에, 각 교과교육 관련 학회에서 교대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교육 관련 학회 중에서 학회 사업으로 초등국어 교사교육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각 교대의 초등국어 교사교육 관련 과목과 국어과 심화과목의 편성과 운영을 평가하여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교대 국어과교육 과목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사용을 권장한 연구는 시행된 바 있다. 새로운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초등국어 교사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학문적으로 견인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코로나19 이후는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뉴노멀이 자리잡을 것이다. 교대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초등국어 교사교육의 관점에서 교대 교육과정을 목적, 편성, 운영, 평가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주요 내용을 결론 삼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 면에서 교대 교육과정은 그간 지식과 기술을 중시하는 역량 중심의 접근을 취해 왔다. 이에 더해서 국어 수업에서 실제적 지혜(프로네시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덕인으로서 교사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대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직, 국어과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와 교육 봉사 등과 같은 비교과 교육과정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

편성 면에서 역사적으로 교대 교육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교대는 졸업 학점을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어교육 관련 과목을 더 늘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안으로 현재의 교양과목을 기준 역할에 더하여 국어교육의 내용학 역할을 일정 부분 맡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방법을 다루는 과목에서는 중복과 결손을 피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과목과 교과교육 과목 간에 융합과목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진행된 국어교육 관련 필수과목의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요구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수업은 전체 수업의 25% 정도로 운영하고, 블렌디드학습, 플립러닝, PBL 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은 비대면으로 운용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발표, 토의 토론, 질의응답, 워크숍, PBL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과목별로 강화할 내용으로는 대학작문 과목에서는 쓰기 윤리, 참고문현작성, 논술문 쓰기, 보고서 쓰기, 이론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회법 과목에서는 수업 담화 능력, 공감적 화법, 발표 능력, 토의 토론 능력, 이론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교육 과목에서는 수업 실행 능력, 영역별 지도 이론, 지도안 작성 능력, 교재 연구법, 기초문식성, 평가 능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평가 면에서 교대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체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학내부 평가나 대학외부 평가 모두 초등국어 교사교육 과목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체제로는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교대의 국어 교사교육을 관련 학술 탐구의 속도에 맞게 대처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각 교대 국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본 논문은 2022.01.24. 투고되었으며, 2022.02.16. 심사가 시작되어 2022.03.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교육대학교』, 세종: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유영만(2015),「실천적 지혜(phronesis)에 비추어 본 수업설계자의 전문성 재고」,『기업교육연구』17(2), 187-211.
- 임상훈·유영만·오현숙(2020),「대학 PBL 수업 활성화 전략 탐색 -A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교육정보미디어연구』26(1), 1-23.
- 천경록(2018),「초등 예비교사들의 국어과 탐구 능력 개발-PBL 과제의 실행을 중심으로」,『한국초등국어교육』65, 225-249.
- 천경록(2021ㄱ),「국어교육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론을 중심으로」,『국어교육』173, 1-29.
- 천경록(2021ㄴ),「뉴 노멀 시대 국어교육을 위한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개선」,『제75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53-68.

초록

초등국어 교사교육을 위한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개선

천경록

이 연구에서는 초등국어 교사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목적, 편성, 운영, 평가의 면에서 점검하였다. 목적 면에서는 현재의 역량 중심 접근에 더해 실제적 지혜로 구체화되는 도덕인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편성 면에서는 교직과 교과교육 과목 간에 융합과목 개발, 교양과목의 담당 역할 추가, 비교과과정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운영 면에서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교육을 25% 정도 유지하되, 블렌디드학습, 플립러닝, PBL 학습을 강화하고, 교양과목과 국어과교육 과목별로 강화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평가 면에서는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각 교대의 초등국어 관련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초등국어, 교사교육, 교육과정, 교육대학, 실제적 지혜, 블렌디드학습, 플립러닝, PBL 학습

ABSTRACT

Improving the Curriculum of Elementary Korean Language Teacher Education

Cheon Gyeongrok

This paper revisited the curriculum of universities of education related elementary Korean language teacher education(CUTE) based on its purpose, organization, operation, and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add teachers' expectation that are embodied in phronesis (meaning practical wisdom) in addition to the current competency-based approach. We suggest developing convergence subjects, expanding the roles liberal arts subjects, and strengthening the extra curriculum. Non-face-to-face classes should be maintained at about 25% of total classes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blended, flipped, and PBL learning. Moreover, course contents must also be renewed. Finally, a new system that is led by academy to evaluate CUTE should be introduced as well.

KEYWORDS Elementary Korean Language,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University of Education, Phronesis, Blended Learning, Flipped Learning, PBL